

◆ 건명 : 제17차 교육실회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일시 : 2020.10.13.(화) 14:00  
◆ 장소 : 세종경사 520호

17차 교육실회회복추진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의 <교육실회회복추진단>은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그동안

사립유치원 제도개선, 사학혁신, 대입 공정성,  
교육기관 채용비리, 학교 성 비위, 학교스포츠 혁신 등의  
여러 현안과 의제를 다루며  
교육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왔고,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조사, 한 번의 개선대책 발표로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 교육계 전체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과감히 문제를 밝히고,  
발본색원의 자세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 1 -

끈질기게 살펴보아야만,  
우리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교육부가

교육청, 대학과 일선 학교 현장 모두를 독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차 교육실회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감사와 조사 2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특목고, 자율고 출신 학생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 소재 6개 대학에 대해  
후속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현황도

- 2 -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6개 대학 특정감사 결과,  
2016~2019학년도 입학전형 자료에서  
일부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6개 대학 후속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하며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례에서 기재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또한  
위반 사항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3 -

학생부 기재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1단계부터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금지 사항을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현재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고교프로파일은 폐지했고  
올해 대입부터 대입전형 시에 고입정보는  
삭제 처리하도록 하여 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교사 추천서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 전형 시  
세부 단계로 구분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다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대책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취임 3종 고 최숙현 선생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교육부는 7~8월 동안

- 4 -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들 약 5만 5천여 명의  
폭력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17개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습니다.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선수는 680명으로  
전체 전수조사 응답 학생 수 대비 1.2%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중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진담기구 등에 의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체육 지도자 및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경찰조사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단 회의 개최가 늦어져  
중요한 조사 및 감사 3건을 겹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현장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